

● 전기협회, 상반기 사회공헌활동 전개

-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펼쳐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21일 옥계3리(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소재)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상반기 사회공헌활동에는 김무영 상근부회장과 오재형 전무이사를 비롯한 협회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해 고추밭 말뚝 박기, 모판 나르기, 비료주기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향후 협회는 독거노인 거주 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배, 집안청소, 주변 환경개선 등으로도 봉사활동 영역을 넓혀갈 방침이다.

상·하반기 연 2회 정도 이 마을을 방문하여 정례화 된 사회공헌활동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인 전기협회는 지난해 11월, 사회공헌활동의 지속성 확보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옥계3리와 1사1촌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다.



● 'KEPIC 성능시험 세미나' 개최

KEPIC 성능시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전기협회는 오는 13일 한전 전력연구원(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대강당에서 'KEPIC 성능시험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기협회와 전력연구원이 주관하고 (주)에네스지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성능시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ASME PTC를 참조로 개발한 KEPIC 성능시험 표준을 현장에서 더욱 폭넓게 활용시키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다.

특히, 올해는 오후 세션을 2개(보일러 계통, 터빈 계통)로 분리, 운영하여 실무 기술자들이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발표 주제는 ▲발전소 용량정의 및 열평형도 ▲실시간 공급가능 발전기 출력 예측기술 ▲KEPIC의 현황과 적용 ▲보일러 계통(△보일러 성능시험 △HRSG 성능시험 △플랜트 성능시험 △관류형 HRSG 설계) ▲터빈 계통(원전 2차측 포함)(△증기터빈 성능시험 I <화력, 복합화력> △증기터빈 성능시험 II <원자력> △가스터빈 성능시험 △보조기기 성능시험)등 KEPIC 성능시험의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들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성능시험 세미나는 매년 200여명 이상의 관계자들이 참석함으로써 산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올해는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 확보와 참여인원 증가 등 한층 발전된 양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6월 7일까지 전기협회 KEPIC처(02-6328-6109)를 통해 가능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 전기협회, 전기공사협회와 MOU 체결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지난달 14일 전기공사협회 강당에서 '전기계(학계·산업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무영 전기협회 상근부회장, 최길순 전기공사협회장, 정현교 서울대 교수,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유수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팀장을 비롯한 양 협회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전기협회와 전기공사협회는 이번 MOU를 계기로 ▲한국형 전기설비 실증단지 구축 공동협력 ▲한국전기규정(KEC)·전기설비시공표준(KEIS)·표준시방서 등 각종 전기관련 기준(규정) 공동개발 ▲전기분야 전문가 양성 및 해외진출 기술지원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

한편, 전기설비 실증단지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건물로 낙뢰 영향 실험을 위해 두 개동으로 조성되며, 경기도 일산 삼송역 인근 1만4800여㎡(4500평)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 2013 전기연감 편수위원회 개최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22일 협회 회의실(서울 중구 수표동 소재)에서 '2013 전기연감 편수위원회'를 개최했다. 오재형 위원장(전기협회 전무이사)을 비롯한 10명의 편수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계 유일의 총서인 전기연감의 ▲목차 구성 및 제목 결정 ▲내용개선 및 보완사항 ▲최적 집필자 등을 심의, 선정했다.



● 전기협회, 영등포공고와 산학협력 MOU 체결

- 현장 중심 실습교육 실시
- 우수인력 양성과 양 기관 공동발전 도모

대한전기협회는 영등포공업고등학교와 산학협력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했다.

전기협회 회의실(중구 수표동 소재)에서 진행된 이번 MOU 체결식에는 전기협회 김무영 상근부회장, 오재형 전무이사, 영등포공고 최수영 교장, 정기장 교감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MOU를 통해 올해 9월 첫 교육이 시작된다. 매년 1회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들에게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교육생들에게 적합한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전기협회는 특성화 고등학교 취지에 부합하는 현장 위주의 실무교육 체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전기산업계 우수인력을 발굴 양성하고, 현장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995년 한전 지정교육기관으로 출발한 대한전기협회 부설 전력기술교육원은 배전 및 송전, 변전의 3개 분야 18개 교육과정에서 우수한 전기기능인력 양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중송전케이블접속원 3급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